

지구환경보전의 길잡이 역할 충실

환경에 대한 홍보·계몽운동 확산에 주력

한국공해방지협회를 전신으로

1960년 이전은 해방후의 혼란기와 6.25동란을 거치는 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6.25 동란중 대부분 생산시설은 파괴되어 물자부족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해야 했으며, 산업구조도 생산성이 낮고 영세한 농산위주의 낙후된 모습이었다.

이런 빈곤의 악순환과 정치적 혼란속에 잘 살아 보자는 범국민적 의욕이 증대하고 이에 부응하여 근대화를 향한 노력이 1962년부터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구체화 됐다.

자본과 부존자원의 빈약, 국내시장의 협소 등 불리한 여건속에서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된 다음해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됐다.

경제개발을 통해 근대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에 잇따라 마련된 이 법의 제정당시는 우리나라 공해문제가 전혀 심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



▲ 범추협과 공동으로 자연보호운동에 나선 환경보전협회 김상하 회장

해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관심은 실업과 빈곤탈피에 있었으며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여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에 필요적 절차와 입법의 구색을 갖춘데 지나지 않았던 느낌을 주었다.

공해방지행정은 1967년 2월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서 공해계를 신설한 것이 그 효시이며, 그 후 1970년 2월 환경위생과가 차관직속 위생관리관으로 승격 개편되면서 그 소속하에 공해담당관을 두게 되었고 1973년 3월에는 차관직속 위생관리

관을 위생국으로 개편하여 공해과를 신설하였고 1975년 8월에는 다시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는 등 이후에도 행정의 조직도 개편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각종 개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반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 짐에 따라 공기와 강물이 오염되고 주변환경이 더럽혀 지는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되면서 60년대 후반 신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공해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극소하나마 예산의 편성과 담당과의 설치를 인정하고 법의 개정과 함께 공해방지협회가 조직됐

다.

공해방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해방지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행하기 위해 공해방지협회를 법인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공해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소용되는 경비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8년 12월27일에 한국공해방지협회가 현 환경보전협회(회장 김상하)의 전신으로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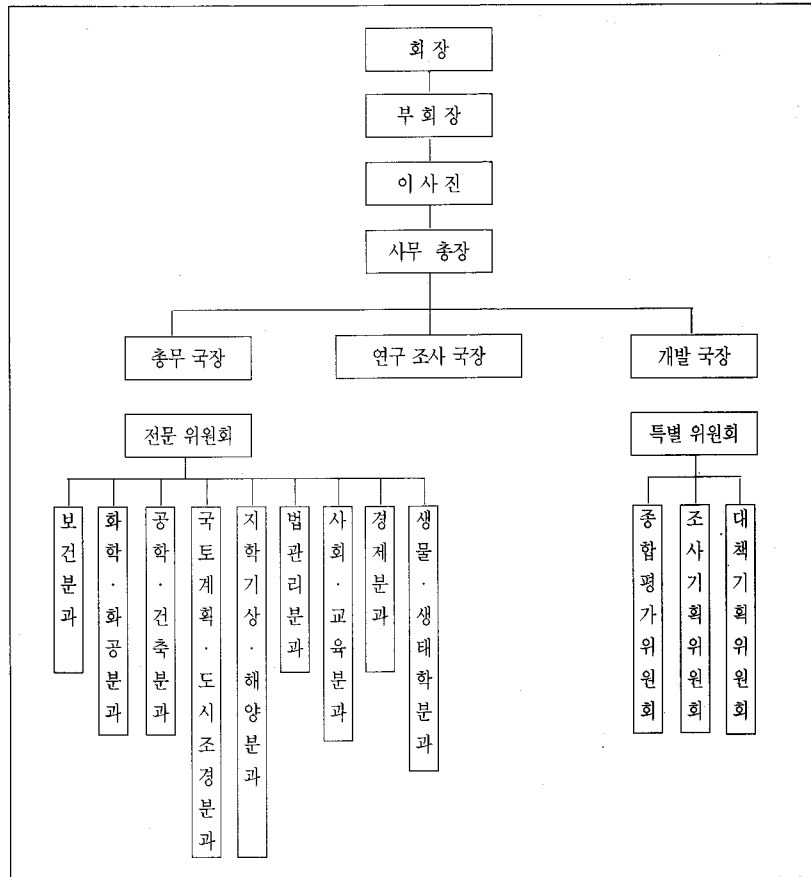
공해방지협회의 설립취지 및 운용방안은 첫째, 공해방지법에 의거한 법정 사단법인체로 공해방지 또는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을 임무로 한 국내유일의 공해관계 법정기구로 정부, 국민, 학술기술계, 산업장 및 공해방지 산업체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심점으로서 운용되도록 했다.

둘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이 있으며, 학술기술계 인사가 정회원이 되어 협회구성의 주체가 되며, 공해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약 1만2천개의 산업장이 특별회원이 되어 협회운용을 지원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세째, 협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임원 및 사무총장 이하의 집행부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은 지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네째, 전문위원회는 학술, 기술의 주체이며 공해관계 전 분야를 망라한 9개의 전문분야별 전과위원회로 구성하였고 분과위원장은 국내에서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진인사로 위촉하고 위원은 학계, 산업장, 연구기관 및 기술행정 분야에서 전문분야별로 참여하도록 했다.

(표 1) 기구표



다섯째, 협회는 공해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인 한국의 현실, 스톡홀름회의 이후의 국제정세, 공해대책 면에서의 기본분야 개발의 부진, 가속화되는 중화학 공업화 현상 등을 기안 사업방향을 정함으로써 한국적 공해대책의 체계화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여섯째, 협회는 우선적인 사업으로 학술기술의 체계화, 조사연구에 대한 종합평가, 문헌, 카탈로그 등 외국의 개발된 기술의 자료수집, 교육 및 기술세미나, 대책 민간기술개발, 조사실시의 지원 및 집행, 행정집행상의 기술지원, 장래를 대비하는 계획수립 등을 다루도록 했다.

일곱번째, 협회는 국고보조, 회비,

찬조금, 사업수수료를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회비는 소액(연 1천원, 특별회원은 기본찬조금 9천원)으로 부담감 없이 다수참여를 기하고 공해대책상 특별회원 대상이 전국에 약 1만2천개소의 산업장이 있으므로 협회 육성능력은 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회비와 사업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여덟번째, 협회는 일반 협회가 가졌던 불합리를 배제하기 위해 위원진의 명예직화를 지양하고 필요시는 전문분야 인사를 상임시켜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회원가입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사업운용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토록 했다.

아홉번째, 협회는 1972년 12월 말

까지 법적, 행정적 기반을 완성하고 73년 6월부터는 공해방지 관리인의 교육을 정부와 협동으로 시작, 민간 기술개발, 문헌수집, 기술세미나, 공해대책 시설설계, 조사연구, 회지발간 등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1백명, 특별회원 37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장의 기술진 및 특별회원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으로는 회장, 부회장은 비상근이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3개국으로 조직되었으며, 전문위원회 9개분과와 특별위원회로 3개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의 주요업무는 법·행정관리, 현황조사, 예방계획, 기본설정, 환경개발을 다루는 조사연구와 기술대책, 교육, 방지산업 등의 기술개발, 부대사업으로 연구소 설립계획, 학회활동, 사업단 활동, 계몽활동, 상담실 운영의 부대사업, 회세확장, 전문위원회, 집행부, 규정제정, 홍보, 재원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실시사업으로는 공해방지관리인 교육, 민간 기술개발사업, 간담회, 세

미나, 강연회 개최, 기관지 기타 참고자료 발행, 조사사업, 문헌수집 보급, 카탈로그 수집, 학술연구자료 보급, 행정절차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협회의 운영방안은 정부와 민간업체 및 단체의 교량적 역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망 형성, 많은 환경단체와 유대강화, 협회의 사업확충, 협회 홍보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주력했다.

예산 대부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

협회의 연간 예산은 협회 본부가 약 12억원, 지부 약 16억원 규모로 주로 회원사 관리 및 각종 환경보전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협회의 주요사업 가운데 매년 열고 있는 것 가운데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은 지난해 16회째를 치렀고 올해에는 17회를 맞게 되는 데 환경에 관한 기기 및 약품, 오염방지기기 등 대기업체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지

난해에는 1백38개 업체에서 2백30부스를 참가했으며, 관람객은 2만여명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참가업체나 관람객의 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가 환경보전에 대한 사업의 하나로 펼치고 있는 홍보관 운영은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에 연수부, 개발부를 두고 여기에 환경마크 상품 및 각종 카탈로그, 반지기기, 각종 환경에 관한 책자, 테이프, 슬라이드 필름, 포스터, 사진 등이 약 60평 정도에 보관·전시되어 있으며, 연간 관람객수는 4천여명이다.

지난해 회원사는 본회 9백47개업체, 지부 4천6백10개업체 등 모두 5천5백57개업체이며, 이 가운데 회비납부업체는 본부 3백65개, 지부 2천9백85업체로 모두 3천3백50업체로 연간 회비 수입은 본회 약 8억9천만원, 지부 약 80억2천7백68만원이다.

회원의 가입방법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으로 환경에 뚜렷한 목적을 가진 자로 환경에 관한 사업 및 배출시설 허가증을 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관리인 및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법정교육은 각 개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환경관리인 교육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 1~5종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3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간은 일반관리자 2일, 전문관리자 4일이다.

또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은 특정, 일반 폐기물배출 사업장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3년에 2회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간은 1일이고 교육내용은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기술, 환경법에 관한 사항과 일



▲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협회가 마련한 '국제환경문제의 동향과 우리의 환경정책 방향' 심포지엄

반 환경보전에 관해서 재교육시켜 환경관리인 및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자질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자가측정, 기술진단, 상담, 사후관리, 조사 연구를 하며 각 회원사 및 환경관련 업체에 기술지도 하고 있다.

김상하 회장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져야되고 환경문제는 지역도 국경도 없으며 어느 특정분야만의 일이 아니므로 국제 환경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그가 갖고 있는 환경에 관한 지론을 폈다.

김 회장은 협회와 NGO와의 역할 수행에 관해 협회가 우리나라 환경보전에 대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협회의 사업수행에 적절하도록 인적, 물적 구성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 강화해야 할 것이 요청되지만 환경보전운동의 국제적 역할수행에 협회가 단체성격을 명확히 하고 재정문제, 다른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상호연대와 환경행정기능 다양화, 자율규제 확대, 지방자치화에 따른 환경규제 기능이 아닌 지원, 지도업무를 위임토록 하여 협회업무의 하나인 국민 및 기업에의 홍보·계몽 업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ISO 관련업무, 국제협력 사업, 법정교육, 회원관리, 기술개발, 환경보전지 발간사업 등 현실성 있게 확충해 나갈 것이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연수, 실질적 능력향상 등 감각을 살려 환경이념을 확고히 하여 성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협회가 명실공히 지구 환경보전의 길잡이 역



▲ 다우케미칼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 환경논문·수필 경시대회

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는 우리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산업에 있어 환경을 고려한 운영 등을 연구, 조사 홍보로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오선진 기자